

集團 曲用(Group Declension)의 問題에 對하여

金 完 鎮 (西江大學)

形態論이나 統辭論의 概念이 반드시 모든 學者에게 있어 固定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或者는 前者를 或者는 後者를 가지고 文法이라는 術語와 對等한 뜻으로 使用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Bloomfield 에 由來하여 現代言語學者間에 꽤 普遍화된 用法에 依하는 限, 形態論과 統辭論은 各各 文法の 下位 分野로서, 前者는 形態素들과 그 形態素들의 構成으로 이루어지는 單語들까지를 研究 對象으로 하는 反面, 統辭論은 單語를 最小의 I-C 로 하여 이루어지는 發語(utterance)의 構成 樣式을 研究하는 部門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오히려 常識에 屬한다.

그렇지만, 實際로 어떤 言語의 文法을 다룰 때, 文法の 下位 部門인 이 形態論과 統辭論 兩者가 위에서 내린 區分대로 그렇게 clear-cut 하게 떨어지는 일이란 그리 자주 있는 일이 못된다. 오히려 大部分의 言語의 境界兩者間의 境界線은 細部的인 調整을 必要로 한다.

예컨대 英語의 境遇에 twenty-eighth; seventy fourth; the Mayor of Boston's hat 따위의 表現에서 bound form 인 -th 나 -'s 는 各各 twenty-eight; seventy four; the Mayor of Boston 과 對等한 I-C 가 되어 있는 것이지 eight; four; Boston 과만 結合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一例로 the Mayor of Boston 은 單語들을 I-C 로 한 構成을 보여 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全體로 하나의 I-C 로 한 것과 그에 對等한 level 의 I-C -'s 와의 構成에는 單語 以下の 單位인 形態素에 不過한 -'s 가 I-C 로서 存在하고 있기 때문에 the Mayor of Boston's 의 構成은 統辭論의 對象이 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John 에 -'s 를 붙인 John's 의 構成과 같이 形態論의 範圍에 든다. 여기서 John 과 對等한 資格을 가진 것이 되고 만 the Mayor of Boston 이 全體로서 그 뒤에 曲用 語尾를 取할 때, 우리는 集團 曲用이라는 表現을 쓸 수 있다.

勿論 이와 對蹠的인 解決을 企圖할 수도 있다. -'s 가 bound form 이기는 하지만 便宜上 이것을 單語의 level 로 올려 Marker 로 處理하므로써, 統辭論의 範圍를 넓히는 方法이다. 單語의 定義를 爲한 素朴한 前提에는 若干 어긋나지만 이 程度의 調整은 容許될 수 있는 性質의 것이다. 要컨대, 우리는 같은 言語 事實에 對한 相當한 合理的인 接近 方法이 적어도 두 가지 있음을 알게 되어, 音韻論에 있어서

의 이른바 Duality in Phonemic Patterning 을 聯想케 된다.

그러면 國語 안에서 이런 問題에 逢着하였을 때 어느 쪽을 擇하는 것이 더욱 合理的일까? (e.g. 그 일을 누가 하는가가 문제다.) 지금의 形便으로는 어떤 決定的인 選擇을 하기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구태어 私見을 말한다면 前者 即 集團曲用 쪽에 左袒하고 싶다.

論者は 論理의 循環을 避하기 爲해서 그 根據를 活用體系의 解釋에서 찾아 보려고 한다. 論者의 解釋에 依하면 活用體系에도 集團曲用에 匹敵한 集團活用이라 이름지을만한 存在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例를 「있다」라는 用言에 두어 보자.

사람이 있다. 개가 있다.

等に 對해서

아버님이 계시다. 선생님이 계시다.

等の 表現이 對立되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 sentence 의 主語가 尊敬할만한 存在로 筆者에 依해서 評價될 때 形態素 {있-}은 /계-/로 實現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例들에서는 主請가 尊敬할만한 存在임에도 不拘하고 「계시다/안계시다」代身에 「있으시다/없으시다」가 나타나는 것은 널리 알려진 事實이다.

朴先生님은 齒牙가 없으시다.

朴將軍은 拳銃이 열자루 있으시다.

북동이 할아버지는 신이 두켜레 있으시다.

이런 類例는 얼마든지 찾아질 수 있는 것이겠는데, 萬若 用言 「없」 「있-」의 直接的인 主語가 各己 「朴先生님」은 「朴將軍」은 「북동이 할아버지는」 등이었다면 宜當 「안계시다」 「계시다」로 變形되었을 것이 그대로 「없-」 「있-」으로 남아 있는 것은 그 直接的인 主語가 「齒牙가」 「拳銃이」 「신이」等임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解釋한다. 그리하여 主語 「朴先生님은」…等に 對하여 各 sentence 의 나머지 全體가 叙述請의 구실을 하는데, (그 나머지 自體가 主·述 構成이므로 Predicative Clause 라 부를 수 있다.) 여기서 所謂尊敬의 補助語幹 「-시-」는 實로 「齒牙가 없-」까지 等 全體에 걸쳐 文頭의 主語들에 呼應하는 것이 「없-」 「있-」 自體에 附着된 것으로는 보기 힘들다.

따라서 叙上의 用言 構成에 關한 認識 態度가 或 容認될 수 있는 것이라면, 全體 文法體系의 調和를 爲해서 體言에 對해서도 集團曲用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나, 斷定的인 發言은 더욱 많은 다른 角度的 觀察을 기다려야 할 것이겠기에 삼가해 둔다.